



류 호 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건강영향평가의 현황과 도입방향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 1977년 세계 보건기구(WHO)가 제30차 총회에서 결의한 목표이다. 물론, 이 목표는 2000년을 넘어 2008년 현재 까지도 달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의제 설정에 대해 논란도 많다. 그러나 문제제기나 비판을 위해 이 해묵은 의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목표는 제기배경, 달성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으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는 마력을 보유한 이상(理想)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수한 보건의료인들이 이 이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인류의 건강을 향한 세계 보건의료계의 중심의제는 지난 30여 년 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세계보건기구는 1978년 알카야타에서 일차의료(primary healthcare)를 주요한 의제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라운드 보고서 이후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며 건강증진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총체적인 결실이 1986년 제1차 세계건강증진회의 개최와 오타와헌장 채택이었다.

건강 증진은 양질의 의료인력과 훌륭한 의료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며,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타와헌장의 이념이었다.

20여 년 간 세계 각국은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분명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세계 보건의료계가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은 건강증진의 유효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이론들과 전략 틀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고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전략은 모호하다.

건강결정요인이 가지는 무수한 가능성,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개인적 차원의 결심과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근원적 한계 등으로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지금도 보다 발전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보건복지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 「건강영향평가」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유럽과 구미 등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개념이다. 이 새로운 개념도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복합적·중층적 접근이라는 건강증진 고유의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을 사회개발의 최우선 과제에 두고 모든 부문에서 건강친화성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 건강도시, 생활터 중심의 접근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아직 미완성의 도구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종종 어떤 사회적 현상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로 지칭되기도 하며, 학문적 접근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제도화된 형태의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등 여러 차원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공공정책으로서의 건강영향평가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민간 위주의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 또는 사후 검증의 기전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이는 이런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 또는 지역, 인구집단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방법론으로서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영향평가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완의 도구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건강영향평가가 건강증진정책에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건강영향평가의 정책 도입 방법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도입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어떠한 모델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신 것이라 판단한다.

지난 11월 17일 복지부는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지난 10여년간 국가가 주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한 금연, 만성질환 관리, 전염병 관리 등 건강분야의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결과는 복지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며, 학계, 민간 등의 노력과,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도 함께 작용한 총체적인 성과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관리한 건강부문이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건강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답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의료계의 총체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 성과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건강영향평가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책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활동의 축적과 전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성과들이 모여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건강영향평가를 포럼의 주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 건강증진정책을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로서 감사를 드리며, 건강영향평가의 도입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언들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 **문건**